

碩士學位請求論文

濟州道 中學生의 政治態度
發達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金 恒 元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李 文 廈

1988年度

濟州道 中學生의 政治態度 發達에 관한 研究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提出者 李 文 廈


指導教授 金 恒 元

1988年 月 日

李文廈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88年 月 日

主 審 宋 成 大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副 審 金 恒 元 

副 審 朴 龍 垸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目 次

I. 序 論	9
1. 問題의 提起 및 目的	9
2. 研究의 制限點	11
II. 理論的 背景	12
1. 政治態度의 概念	12
2. 政治社會化와 政治態度	15
3. 政治的 定向	20
4. 家庭과 政治社會化	22
5. 學校와 政治社會化	24
III. 研究方法	27
1. 測定道具	27
2. 研究對象 및 標集方法	27
3. 資料處理 및 分析方法	29
IV. 結果 및 論議	33
1. 領域別에 따른 政治態度 分析	33
2. 背景變因別에 따른 政治態度 分析	38
3. 政治的 定向의 類型	50
V. 要約 및 提言	53
1. 要 約	53
2. 提 言	54
○參考文獻	
○英文要約	

圖表 目次

〈表1〉 質問紙의 問項構成 內容	28
〈表2〉 地域別 質問紙 實施對象者數와 回收現況	29
〈表3〉 背景變因別 標集人員	30
〈表4-1〉 政治態度에 대한 全體反應結果	34
〈表4-2〉 政治態度에 대한 全體反應結果	37
〈表5〉 性別에 따른 政治態度의 差異	39
〈表6〉 學年別 政治態度 點數	40
〈表7〉 學年別에 따른 政治態度의 差異	42
〈表8〉 學校 所在地別에 따른 政治態度의 差異	43
〈表9〉 父母의 年齡別에 따른 政治態度의 差異	44
〈表10〉 父母의 學歷別에 따른 政治態度의 差異	46
〈表11〉 父母의 職業別에 따른 政治態度의 差異	47
〈表12〉 家庭의 生活程度에 따른 政治態度의 差異	49
〈表13〉 政治效能·政治信賴의 發達	50
〈圖1〉 中學校 學生의 政治的 定向	50
〈圖2〉 政治的 定向의 發達	51

I. 序 論

1. 問題의 提起 및 目的

현대는 과거보다도 政治機能에 대한 대중의 요구가 늘어나면서 정치도 다양화되고 적극화되어 이른바「政治의 時代」혹은「政治化의 時代」로 불리워지고 있다. 또한 정치의 힘은 개인생활 구석 구석에까지 침투하여「政治의 日常化」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한 나라의 국민은 政治的 事件, 政治的인 役割, 政治的인 作用에 대하여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어떠한 유형의 態度, 信念, 그리고 感情 등을 가지게 된다.

한 나라의 정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法이나, 制度나, 政治團體의 分布나, 經濟的·社會的 條件이나 國家的 輿件에도 많이 달려 있지만 그 나라의 政治文化에도 크게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¹⁾ 따라서 민주정치의 토착화를 추구하는 우리들에게는 개개인의 政治的 定向이 민주적인 政治文化로 집약되도록 그들을 성인으로 육성시키는 일이 先決要件이라고 말할 수 있다. 政治文化의 민주화 혹은 민주적인 政治文化의 成熟化를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을 어릴 때부터 민주적인 政治性向을 지니는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政治社會化 過程이 중요한 매개과정의 성격을 띠게 된다. 왜냐하면 政治社會化 過程을 통해서 기존 政治文化의 유지뿐만 아니라 새롭게 추구하는 政治文化에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²⁾

한 개인이 그가 속한 사회의 政治文化를 습득하고 政治的 自我를 형성해가는 과정을 밝히려는 政治社會化에 관한 研究가 1960년대 이후 미국 政治學界의 주요 정치분야로 등장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말부터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

1) 李永鎬, “政治社會化의 過程”, 金雲泰 外「韓國政治論」(서울: 博英社, 1981), p. 182.

2) 韓興壽, “民主政治 體制의 土着化와 教育”, 社會科學 論文集 第5輯, 延世大學校 社會科學研究所, 1972, p. 21.

政治的 行動을 유아기서부터 시작되는 학습의 결과라고 볼 때, 아동기에 학습된 政治的 定向(political orientation)은 그 이후에 학습된 政治的 定向보다 성인의 政治的 行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아동기에 학습된 政治的 定向은 성장후에 형성되는 政治的 行動보다 느리게 변화하는 즉 지속적인 것이라고 한다.³⁾ Dawson 등은 대체로 아동 후기와 청소년 초기인 11~15세 사이를 사람의 기초적인 정향이 습득되는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다.⁴⁾ 이와같이 육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숙되어가고 人格完成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시기인 中等學校 시절은 어느 때보다도 감수성이 높아 여러가지 문제들을 쉽고 빠르게 받아들여지게 되며 일단 이 시기에 받아들인 것은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상당한 기간 지속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청소년기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한 개인의 政治的 定向이나 性向의 기본적인 틀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政治社會化過程을 중요시하며 청소년기의 政治社會化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기의 政治社會化에 관한 연구가 많이 행해지긴 하였으나, 특히 濟州道의 청소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⁵⁾ 따라서 濟州道 中學生이 갖는 政治態度를 조사 분석하여 봄으로써 그들의 政治的 定向을 밝혀보는 일은 매우 의의있는 것이라 하겠다.

本 研究에서는 濟州道 中學生의 政治態度는 社會·經濟的 背景과 性別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조사 분석하고, 學年이 올라감에 따라 中學生의 政治態度는 어떠한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는지를 밝혀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David Easton and Robert D. Hess, "The Child's Political World" *Midwest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6. Aug., 1962, pp. 229~246.

4) Richard E. Dawson, Kenneth Prewitt and Karen S. Dawson, *Political Socialization* (Boston: Little, Brown and Co., 1967), p. 60.

5) 濟州道の 政治社會化에 관한 研究로는 任乙化, "濟州道 高等學生의 政治社會化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1985), 金星美, "濟州道 高等學生들의 市民意識에 관한 調查研究" (碩士學位論文,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1988) 등이 있을 뿐이다.

2. 研究의 制限點

本 研究는 濟州道 中學生의 政治態度를 측정하여 민주적인 政治文化의 정착과 민주 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教育的 方向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制限點을 갖는다.

첫째, 政治社會化 過程에 관한 測定變因으로 市民義務感, 政治效能, 政治信賴, 政治參與의 4가지 政治態度에 局限함으로써 中學生의 政治態度를 전부 측정할 수 없었다.

둘째, 本 研究를 위한 調查對象의 標集選定은 濟州道內에 소재하고 있는 7개 中學校 1,2,3學年의 男女 學生에 局限함으로써 濟州道 中學校 학생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표집으로서의 지역적인 偏頗性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 背景變因도 性別, 學年別, 學校 所在地別, 父母의 年齡別, 父母의 學歷別, 家庭의 生活程度別로 局限시켰다.

넷째, 政治적으로 제13대 總選舉가 실시될 시기에 질문지 조사가 수행되었으므로 本 調査에 응한 學生들의 政治的 態度가 선거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II. 理論的 背景

1. 政治態度的 概念

政治態度란 心理學的·社會學的 背景을 갖는 概念으로 그 定義가 學者에 따라서 다르며 一貫性을 찾기 곤란하다. 따라서 政治態度에 대한 研究者들은 研究目的에 따라 政治態度를 달리 定義하고 있다.

政治態度에 대한 定義를 내리기 이전에 모든 종류의 社會 및 政治的 行動은 態度를 통해서 仲介된다⁶⁾는 점에서 우리는 태도에 대한 개념과 일반적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ysenck는 태도에 대해서 “態度는 여러가지 면에서 習慣과 매우 유사한 점이 있다. 態度와 習慣은 둘다 중추신경계의 「學習된」 변화이다. 두 개념은 先行條件과 結果行動과의 연결을 요구하는 假設的 構造物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⁷⁾ Thomas 등은 “사회에 있어서 개인이 당면하는 現實的·社會的 事態에 대하여 야기될 수 있는 가능한 한 反應的 行動을 결정하는 개인의 意識過程”⁸⁾이라 정의하는가 하면, Rokeach는 태도를 “特殊對象(形態的, 社會的, 具體的, 抽象的)에 초점을 둔 몇몇 信念의 지속적인 조직이며, 따라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選好의 방식으로 응답하게 하는 것”⁹⁾이라 하였다. 또한 Sheriff와 Cantril은 태도를 “어떠한 事態에 대한 個體의 고유한 潛在的 反應傾向”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특징으로써 다음의 5가지를 들고 있다.¹⁰⁾

6) H. J. Eysenck, *The Psychology of Politics*(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54), pp. 265~268.

7) Ibid.

8) W. I. Thomas and Znanieck, *The Polish Pleasant in Europe and America*, vol. 1. 1981, p. 21. 朴容憲, 「社會的 行動과 學習」(서울: 教育出版社, 1984), p. 300에서 再引用.

9) Milton Rokeach, “The Role of Values in Public Opinion Research”,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32(1968~1969), p. 550.

10) 「教育心理學辭典」(서울: 培英社, 1965), p. 350.

- ① 後天的으로 학습된 것.
- ② 특정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特殊性
- ③ 항상 대상에 대해서 價値判斷이 다르다.
- ④ 태도는 학습에 의해서 결정되나 비교적 지속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 ⑤ 언어에 의해서 결정되나 비교적 지속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태도라는 개념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밖으로 표현된 行動 特性은 아니며, 외부로 표현되는 개인의 社會的 行動을 유발하고 특수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개인 내부에 있을 것으로 추리되는 媒介變因으로써의 假設的 構成概念인 것이다.¹¹⁾

이와같은 태도의 諸 定義에 비추어 政治態度에 대한 概念定義를 내릴 수 있으나, 좀더 구체적인 도움을 위해서 政治社會化를 연구하는 學者들의 政治態度에 대한 견해를 살펴 보고자 한다.

Almond는 政治文化를 정치에 대하여 政治體系의 구성원들이 갖는 政治態度와 定向의 유형이라고 하면서 그 定向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¹²⁾

- ① 認知的 定向 : 政治的 對象에 대한 知識
- ② 情意的 定向 : 政治的 對象에 대한 느낌
- ③ 評價的 定向 : 政治的 對象에 대한 판단과 견해

Massialas는 政治文化의 概念을 政治的 構造와 對比되는 것으로써 정치질서에 대한 認知的 定向뿐만 아니라 개인의 態度를 포함한다고 하면서 그 영역을 Almond와 같이 認知的 定向, 情意的 定向, 評價的 定向으로 구분하고 있다.¹³⁾

1940년대 부터 문헌에 나타난 政治態度의 종류를 Hyman이 정리한 것을 보면 戰爭에 대한 태도, 全體主義에 대한 태도, 共產主義에 대한 태도, 政黨에 대한 태도, 國際問題에 대한 태도, 自由主義와 保守主義에 대한 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¹⁴⁾ 그

11) 朴容憲, 前掲書, p. 300.

12) Gabriel A. Almond and G. Bingham Powell Jr. *Comparative Politics: A Developmental Approach* (Boston: Little, Brown and Co., 1966), p. 56.

13) Byron G. Massialas, "Citizenship and Political Socialization", *Encyclopedia of Educational Research*, 1969, p. 9.

14) Herbert H. Hyman, *Political Socialization*(New York: The Free Press, 1965), pp. 53~54.

외에도 研究者에 따라서 政黨同一視, 政治的 効能感, 冷笑感, 世界主義, 政治的 信賴感, 市民義務感, 自民族 中心主義, 政治的 疎外感, 政治的 興味, 市民的 寬容 등 등 心理學的 背景을 갖는 무수한 개념들을 借用해서 쓰고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상태에서 研究者들이 당면하는 困苦는 태도를 선정하는 기준의 모호성에서 나타나게 된다. 本 研究에서는 Campell이 定義한 것처럼 “政治對象에 대한 개인의 고유한 잠재적 反應傾向”¹⁵⁾을 政治態度라 하여, 政治態度를 市民義務感(Citizen Duty), 政治効能(Political Efficacy), 政治信賴(Political Trust), 政治參與(Political Participation) 등으로 나누어서 概念을 定義해보면 다음과 같다.

1) 市民義務感

市民義務感은 국민으로서의 한 개인이 국가나 정부에 대하여 해야 할 본분에 관한 느낌을 말한다. Massialas에 의하면, 市民義務感이란 사람들이 그들의 정부에 대하여 느끼는 의무감으로, 이것은 일반적으로 선거에서의 投票와 法과 規則에 대한 복종으로 표현되거나, 또는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견해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기도 한다.¹⁶⁾

2) 政治効能

政治効能이란 개인의 政治行爲가 政治過程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느끼는 것을 말한다. 즉 개인이 정부의 기능을 이해하고 政府機能 및 政治過程을 포함하는 정치적, 사회적 변화가 가능하다고 느끼며 동시에 이러한 변화에 각 시민 개인이 政治的 行爲가 한 몫을 담당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¹⁷⁾ Easton과 Dennis는 政治効能을 개인의 직접적인 政治効能感, 개인의 요구에 정부가 응

15) D. T. Campell, "The Indirect Assessment of Attitude", *Psychological Bulletin*, No. 47. 1950, pp.15~38.

16) Byron G. Massialas, *Education and The Political System* (California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69), p.15.

17) 庚在浩, "高等學校 學生의 政治社會化에 관한 調查研究(碩士學位論文, 全南大學校 行政大學院, 1982), p.27.

한다는 신념, 정부의 理解可能性에 대한 생각, 영향을 미치는 적절한 수단의 입수가 능성, 그리고 정부에 순종해야 한다는 운명론에 대한 저항감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¹⁸⁾ 일반적으로 정치의 효능이 있는 개인일수록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믿음이 크다고 한다.¹⁹⁾

3) 政治信賴

政治信賴는 정부와 정부지도자에 대한 믿음과 관련된 감정을 의미한다. Almond와 Verba는 이를 產出效果(output effect), 혹은 정부관리들의 수중에 있는 處置에 대한 국민의 기대의 한 종류라고 하였다.²⁰⁾ Paige에 의하면, 이것은 주로 政治體系의 產出局面에 대한 政治的 定向으로서, 信賴點數가 높은 사람은 그가 정치적 投入過程에 참여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정부가 근본적으로 그들의 편에서 활동한다고 믿을 것이라 하였다.²¹⁾

4) 政治參與

政治參與는 政治問題에 대한 토론이나, 정치적 집회에의 참가 등과 같이 실제로 政治行爲에 참여하거나 또는 기대되는 참가를 말한다. 개인은 政治參與를 통하여 政治體系의 政策決定過程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그의 요구와 지지를 표시한다.

2. 政治社會化와 政治態度



어떤 사회를 막론하고 그 社會構成員들 사이에는 비교적 공통된 價値體系, 信念,

- 18) David Easton and Jack Dennis, "The Child's Acquisition of Regime Norms : Political Effica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1. 1967, pp. 25~38.
- 19) 印正鈺, "人性特性과 政治態度와의 關係에 關한 研究"(碩士學位論文, 서울大學校大學院, 1977), p. 15.
- 20) Gabriel A. Almond and Sidney Verba, *The Civic Culture :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65), p. 62.
- 21) Jeffery M. Paige, "Political Orientation and Riot Particip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36, Oct., 1971, pp. 810~820.

感情的 態度 및 行動樣式 등이 있게 마련이다. 이런 것들은 한 世代로부터 다른 世代로 전해 내려간다. 그러므로 하나의 어린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는 사회가 지정해주는 價値體系, 信念, 感情的 態度 및 行動樣式 등에 적응해가면서 성장해간다. 이와같은 과정을 가르켜 社會化라고 부른다. 즉 社會化라는 것은 어떤 개인이 나이 어린 시기로부터 그 사회의 제도화된 목표, 규범 또는 일반적으로 문화로써 체계화되고 있는 價値體系를 內面化시켜, 그것을 통해서 문화적으로 同一化, 적응해가는 과정을 말한다.²²⁾ Langton에 의하면, “개인들이 그들이 속하고 있는 社會集團과 사회의 生活樣式인, 그들의 態度的 構造(attitudinal structure)와 行爲類型(behavior pattern)에 적응되는 과정”²³⁾이라고 社會化를 정의하고 있다.

인간은 이와같이 生物學的, 社會學的인 면에서 성숙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도 성숙한다. 政治社會化란 인간의 政治的 成熟過程, 즉 어떠한 과정을 밟아서 개인이 政治的 事件이나 정부의 역할, 또는 政治的 人物에 대하여 고유의 태도 및 감정을 갖게 되었는가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政治社會化란 政治的 事件에 관한 「人間中心的 說明」(People-Oriented Explanation)이라고 말할 수 있다.²⁴⁾

오늘날까지 定立된 政治社會化의 概念들은 매우 다양하게 定義되고 있다. 이 概念들을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政治社會化란 사회의 여러 媒介機關을 통하여 개인이 정치에 관련되는 態度的 性向과 行動類型을 학습하는 과정이다.²⁵⁾
- ② 개인이 政治定向과 行動類型을 획득하는 發達過程이다.²⁶⁾
- ③ 개인이 政治體系의 規範과 價値를 內面化하는 과정, 또는 政治體系의 諸 價値

22) 李克燦, “政治社會化의 課題와 人間形成의 方向”, 「延世教育科學」第8輯, 1975, p. 4.

23) Kenneth P. Langton, *Political Socializ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p. 4.

24) Richard E. Dawson and Kenneth Prewitt, *Political Socialization* (Boston: Little Brown and Co., 1969), p. 4.

25) Kenneth P. Langton, op. cit., p. 5.

26) David Easton and Jack Dennis, *Children in the Political System* (Macraw-Hissbook Co., 1969), p. 7.

나 政治文化가 한 世代로부터 다음 世代로 전해지는 과정²⁷⁾

④ 政治社會化란 政治文化에의 引入過程이다.²⁸⁾

⑤ 體制의 관점에서 본다면 政治社會化는 국민들의 政治生活에 影響력을 미치는 集合된 政治觀을 획득하는 과정이며,²⁹⁾ 개인 수준에서의 政治社會化는 한 개인이 특수한 政治的 定向 즉 政治世界에 관한 지식, 느낌, 그리고 평가를 습득하는 단순한 과정이다.³⁰⁾

⑥ 개인이 政治制度에 대하여 그리고 體制내에서의 그들의 역할에 대하여 態度와 感情을 얻는 과정이다.³¹⁾

⑦ 정치적으로 관련된 社會的 態度와 性格特性的 획득과 같은, 政治的 行動에 영향을 주는—계획적이든 비계획적이든, 형식적이든, 비형식적이든—모든 政治的 學識을 포괄하는 개념이다.³²⁾

⑧ 政治社會化는 공공연한 지지라기 보다는 은밀한 지지이지만 현 政治體制의 기능수행을 위해서는 政治社會化가 필수적이다.³³⁾

이상에서 살펴본 政治社會化의 개념들은 그 사회의 政治文化를 그 구성원들에게 전승해주는 과정이며, 또한 政治生活樣式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政治文化란 문화 속에서 특히 정치와 관계깊은 부분, 즉 政治行動이나 政治過程에 영향을 미치는 思考方式, 느낌, 判斷樣式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 사회에서 사는 모든 개인이 가진 政治的 定向 내지 定向의 總和이다. 여기서 말하는 政治的 定向이라

27) Byron G. Massialas, "Citizenship and Political Socialization", pp. 20~21.

28) Gabriel A. Almond and James S. Coleman(eds.), *The Political of the Developing Areas*(Princeton,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0), p. 27.

29) Damon, Ferwitz and Dawson, op. cit., p. 4.

30) Ibid., p. 33.

31) Gabriel A. Almond and James S. Coleman, op. cit., p. 3.

32) Fred I. Greenstein, "Political Socializatio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ization*, Vol. 14, (New York : Macmillan and Free Press, 1968), p. 3.

33) 鄭世九, "初·中學校 學生들의 政治態도의 發達: 政治信賴와 政治效能" 「韓國教育」 (서울: 韓國教育開發院, 1974), p. 24.

는 것은 心的 및 情緒的 行爲의 면에서의 기본형식의 지칭으로, Easton은 이것을 ① 개인이 政治現象을 知覺하며 해석하는 방법 ② 政治的 評價基準, ③ 政治制度나, 政治家에 대한 느낌 등으로서 파악하고 있다.³⁴⁾

요컨대 政治社會化란 政治文化의 학습과정으로 볼 수 있다. Beer에 의하면 政治文化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³⁵⁾

사람은 공통된 인간성으로 어떤 감정적 충동, 知的 능력, 도덕적 정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다소 변경시켜 가면서 교육과 모방을 통해서 다음 世代로 전달하고 있다. 이것을 感情的 態度, 價値, 信念이라고 하며, 사회의 문화는 이것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政治文化는 일반문화의 下位文化(sub-culture)로서 정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感情的 態度, 價値觀, 信念 등이 政治文化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政治社會化를 통해서 일정한 政治的 定向이나 態度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선택을 해야할 상황에 처하여 그것을 기준삼아 행동하게 됨으로써, 많거나 적거나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리하여 政治社會化의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개인은 하나의 政治的 自我를 획득하게 된다. 政治的 自我는 개인의 정치적 태도나, 감정이나, 신념이나, 인식의 총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정치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태도나 평가, 민족주의적 감정이나, 애국심과 같은 정서적인 것, 정치에 관한 지식, 어떤 집단이나, 파벌과의 一體化, 정치의 세계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등등 여러가지 요소로 되어지고 있다. 이와같이 정치적 정향이나 일련의 태도는 물론 일정한 연령에서 固定化되어, 이른바 政治社會化의 과정이 중지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상황이나, 경험을 통해서 끊임없는 再社會化(resocialization)의

34) David Easton and Robert Hess, "The Child Changing Image of the President",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24, 1960, p. 663.

35) Samuel H. Beer. "The analysis of Political System", *Patterns of Government*, ed., by Samuel H. Beer and Adam B. Ulam, (New York : London, 1958), p. 32.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다.³⁶⁾

결국 政治社會化는 전체로써 국가의 정치생활에 관련되며 소위 政治文化에引入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Dawson 등에 의하면 政治社會化는 그 사회의 政治文化를 維持하고 變型시키며 創造하는 세 가지 기능을 다 갖는다고 한다.³⁷⁾ 기성세대가 다음의 세대에게 그들의 政治文化를 전수해주고 새로운 세대는 기존의 政治文化나 政治樣式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政治社會化라 할 때에는 그 사회의 政治文化를 유지하는 기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수과정에서 政治文化는 어떠한 변화를 받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개인의 政治態度나 政治意識의 형성과 변화는 政治文化외의 타요인이나 다른 政治文化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즉 근대화로 생활환경이 변화하고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접하게 되는 타지역의 政治文化가 많아짐으로써 한 政治文化는 다른 政治文化에 많은 영향을 주고 받게 될 것이며 한 사회 내에서도 다른 지역이나 다른 사회계층의 政治文化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서 政治文化를 변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政治社會化 過程에서 기존의 政治文化는 변형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政治文化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한정된 변화만이 도입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한정된 변화의 누적의 긴 시간을 통해서 보면 큰 변형을 의미할 수도 있겠다.

또한 한 나라의 政治文化가 여러 차례의 정치적 변화의 경험위에 유지되고 발전해감을 고려할 때 政治社會化는 적응과 전수라는 소극적 개념에만 그치지 않고 새로운 政治文化의 변형과 창조라고 하는 적극적인 개념으로까지 넓힐 수 있겠다. 즉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政治社會化는 기존의 政治文化를 전수하고 적응하는 외에 과거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政治文化를 형성하기도 하는데 이때 이것은 政治社會化의 창조의 기능이라 하겠다.

그러면 政治社會化의 維持와 變型 또는 創造의 세 기능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중시해야 할 것인가는 그 사회의 발전 정도나 그 나라 政治體制의 민주화 수준이나, 정치

36) 李克燦, 前掲書, p. 3.

37) Richard E. Dawson and Kenneth Prewitt, op. cit., p. 27.

가 지향하는 目標 등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겠다.³⁸⁾

결국 政治文化는 政治社會化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政治社會化의 결과로서 政治文化가 형성 또는 변화하는 政治社會化의 政治文化와의 상호관련성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政治社會化란 반드시 그 나라의 사회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體制規準, 즉 공통적 價値體系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政治社會化란 政治體系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개인이 그 사회의 體制規準 및 정치적으로 관련된 태도를 습득하는 과정³⁹⁾이라고 간단히 定義할 수 있다.

3. 政治的 定向

Almond와 verba는 政治體系에 있어서 投入과 產出을 구분하였다. 投入過程은 利益集團의 활동과 개인의 정부에 대한 要求와 支持를 말하며, 產出過程은 정부에 의하여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을 의미한다.⁴⁰⁾ Paige는 政治體系의 投入過程에 대한 신념을 效能, 그리고 產出過程에 대한 신념을 信賴라 보고 이들 效能과 信賴의 결합을 통해서 나타나는 집단의 지배적인 政治定向을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⁴¹⁾

	← 높은 信賴	政治信賴	낮은 信賴 →
↑ 높은效能 政治效能	I. 忠誠의 政治定向 民主主義的		IV. 異意의 政治定向 不安定的
↓ 낮은效能	III. 從屬의 政治定向 傳統的		II. 疎外의 政治定向 全體主義的

38) 庾在浩, 前掲書, p. 38.

39) 金在永, 「政治社會化論」(서울: 大旺社, 1982), p. 24.

40) G. Almond and S. Verba, *The Civic Culture*, p. 14.

41) Jeffery M. Paige, op. cit., pp. 810~819.

1) 政治信賴와 政治效能이 다같이 높은 경우

이러한 집단은 忠誠의 政治的 定向을 갖는다. 정부는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들의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그들은 政治體의 능동적인 支持者가 될 것이다. 이와같은 政治的 定向은 충성스런 집단의 요구에 응하는 정부에 달려 있다. 이러한 정치적 정향에 부응하는 것은 民主主義的 政治體系이다.

2) 政治信賴와 政治效能이 다같이 낮은 경우

이러한 집단은 政治參與에 있어 능동적이지 못한 疎外의 政治的 定向을 갖는다. 현존하는 정치구조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치적 관심이나 지식수준이 낮으므로 급진적 정치행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집단은 정치적 활동이란 위협하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全體主義的 政治體系에서 찾아볼 수 있는 政治的 定向이다.

3) 政治效能은 낮으나 政治信賴는 높은 경우

이러한 집단은 從屬의 政治的 定向을 갖는다. 정부가 근본적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한다고 믿으나, 이러한 집단의 요구가 利益集團이나 政黨을 통해 표현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정부의 책임성 여부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統治者는 家長的 權威를 가지고 지배하며 傳統的인 政治體系에서 찾아볼 수 있다.

4) 政治效能은 높으나 政治信賴는 낮은 경우

이러한 집단은 異意의 政治的 定向을 가지며, 이러한 政治的 定向이 지배적일 경우 政治體系가 不安定하다. 정부를 믿을만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야 하며, 그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을 경우에는 體制의 變化를 목표로 하는 급진적인 행동이 야기될 수 있다.

4. 家庭과 政治社會化

家族은 사회의 母體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느끼고 판단하며 이것을 사회에 적용하는 모든 방법을 결정지워주는 가장 최초의 社會集團이다. 다시 말하여 어린이는 말을 배우기 시작한 때부터 그의 家族에 의하여 소개된 習慣과 사회의 風習에 영향을 받으며 그의 身體的·精神的 特性을 형성해주는 가장 중요한 社會化的 媒體이다.⁴²⁾

본래 家庭은 政治社會化나 政治教育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政治社會化的 가장 중요한 媒介體라고 할 수 있다. 家庭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政治感覺과 定向이 형성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배이고 익히는 政治的 感覺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어떠한 政治意識을 갖고 어떠한 政治的 態度를 갖느냐는 그가 자란 家庭環境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權威主義的 家庭環境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연히 權威主義的 政治文化를 갖게 되어 정치세계에서 支配·服從을 강조한다. 保守主義的 家庭環境에서 오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政治改革이나 社會改革에 鈍感하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종류의 가정환경 속에서 자라났느냐가 그 사람의 政治的 感覺과 態度를 크게 좌우한다.⁴³⁾

이러한 가정의 강력한 社會化 役割은 다음 두 가지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첫째로 어릴 때의 경우 社會化되는 개인에게 가정은 거의 독점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人格形成, 兒童發達, 그리고 社會化的 대부분의 理論들은 어릴때가 기초적 人性이나 社會·個人的 正體性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부모는 자식에게 세계에 관한 사상이나 지식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어떠한 것이 바람직한 행동이며, 어떠한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는 것인지와, 어떻게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등을 가르쳐준다. 부모와 손위의 형제, 자매들은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중요한 役割模型 노릇을 한다. 개인이 태어난 후 처음 몇 년 동안 가지는 중요

42) 金在永, 前掲書, p. 117.

43) 金桂洙 外, 「現代政治過程論」(서울: 法文社, 1981), p. 80.

44) Dawson, Prewitt and Dawson, op. cit., pp. 114~115.

한 인간관계는 보통 가정안에서 이루어진다.

둘째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한 가정의 구성원 가운데 형성되는 結集力인 것이다. 가정의 구성원들 간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서로 밀착된 강도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그 연결이 개인적이면 개인적일수록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어떠한 인간관계도 부모와 자식간, 어떠한 경우에도 형제와 자매간의 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가정은 全人生을 통하여 社會的·政治的 觀을 형성하는데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政治的 態度 및 行動과 그들 부모의 政治的 態度 및 行動간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가 실시되었는데 대부분의 연구가 보여 준 결과는 개인은 자기 부모와 같은 政治的 態度 및 價値를 갖는다는 것이다. Jaros의 研究⁴⁵⁾에 의하면

- ① 父子間에는 같은 政治的 態度가 흔히 발견된다.
 - ② 政黨同一觀와 政治的 關心의 정도는 부모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
 - ③ 가족간의 유대가 긴밀할수록 家族成員의 政治的 態度가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다.
 - ④ 아버지가 없는 가정은 더욱 權威主義的이고 정치에 덜 관심을 가지며 정치적인 效能感도 적다.
 - ⑤ 下流層 아동은 권위를 두려워하도록 가르쳐지고 中流層 아동은 권위를 존중하도록 가르쳐진다.
 - ⑥ 대학생의 政治的 關心과 示威行動은 가정에서의 政治討論을 하는 정도에 달려 있다.
- 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가정은 여러 방법으로 政治的 自我의 발달에 영향을 주며 또 政治的 自我를 형성시켜 준다. 따라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가정일지라도 자녀들의 특별한 정치세계에 조그마한 영향을 끼치기 마련인 것이다.

45) Dean Jaros, *Socialization to Politics* (New York : Praeger Publishers, 1973), p. 85.

5. 學校와 政治社會化

개인이 성장하면서 차츰 가정환경을 벗어나 外界로 나가면 政治社會化의 매체로서 다른 집단이나 제도에 직면하게 된다. 그 중 가장 많은 경험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며 학교라는 2차적 매체는 특히 가정환경에서 확립된 態度나 行爲類型을 유지하고 또한 새로운 定向을 형성하기도 한다. 즉 이곳에서 再社會化가 이루어진다.⁴⁶⁾

개인은 주로 학교에서 政治制度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우며 협동과 규칙의 준수 등 政治生活에 필요한 態度와 行爲方式을 학습한다. 즉 정치현실에 대한 理論化의 기틀이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政治社會化에 있어서 학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져가고 있다. 政治體制와 教育政策에 따라 政治社會化에 있어서 학교의 역할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학교는 의식적이고 계획된 수업을 통해서 공식적인 신념을 가르칠뿐만 아니라 학교의 분위기에서 터득된 무심결의 우연한 경험에 의해서도 態度를 社會化한다.⁴⁷⁾

이와같이 학교라는 形式過程을 거치는 동안 개인은 政治的 意識이나 參與의 능력을 높이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民主市民으로 자라나게 된다.

政治社會化의 매체로서 학교의 영향을 儀式生活, 教師의 役割, 그리고 學級文化 등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儀式生活

일반적으로 政治的 價値는 학교에서의 儀式生活을 통하여 아동들에게 전달된다. 즉 아동들은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학교장의 훈화 등 많은 애국적 교육을 경험한다. 教育政策 樹立者들은 이러한 국가적 상징에 대한 체계적 露出이 국가나 국가적 제도에 대한 고도의 애착과 존경심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⁴⁸⁾

46) 金在永, 前掲書, p.136~137.

47) Kenneth P. Langton, op. cit., p.83.

48) Dawson, Prewitt and Dawson, op. cit., pp.146.

儀式生活이 국가적 충성심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⁴⁹⁾

먼저 儀式生活은 非合理的, 情緒的인 것으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절대적 감정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감정은 어릴적부터 마음 속 심층부에 깊이 다져야 한다.

儀式生活에 나타난 行動, 言語, 表象 등은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모를지라도 아동들로 하여금 저절로 머리숙여 복종, 존경토록하며 숙연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여 국가적 충성심을 더욱 강화해 준다.

다음 儀式生活이 애국심을 불러 일으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이유로 儀式의 집단적 행동을 들 수 있다. 集團經驗은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이에 대하여 압도적인 영향을 미친다. 집단적 행동이란 가정이나 개인이 고립해서 개별적으로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유대감을 갖게 하며 政治文化의 중요부분인 우리 感情(we-feelings)을 강화한다.

2) 教師의 役割

일반적으로 교사가 교실내에서 학생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근본적인 가치는 合意價値와 派黨的 價値, 혹은 保守主義的인 態度와 進步主義的인 態度로 나눌 수 있다. 合意價値는 사회에 넓게 共有된 것으로 정부형태에 대한 신념, 선거과정에 대한 신임, 다수의 지배 및 소수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믿음 등이고, 派黨的 價値는 사회를 구분해주는 가치로서 정당의식이나 정책에 대한 입장 등을 말한다.⁵⁰⁾

교사가 合意價値에 대해 口頭的 支持를 보낼 것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假定할 수 있으나, 그들은 교실을 派黨的 價値나 爭點을 이루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광장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어느 특정한 입장을 취해서는 아니되리라 생각된다. 또한 교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정치적인데 반해

49) 金在永, 前掲書, p. 138~139.

50) 上掲書, p. 150~151.

다른 한편으로는 非政治的이 되도록 요구되기도 한다. 이 두 입장을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교사의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교실에서의 교사는 학생들에게 정치적 가치의 전수자로서 비교적 無力하다.

3) 學級文化

교사는 학급내에서 하나의 學級文化를 조성하여 학생의 정치적 태도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교사의 민주적인 지도성은 민주적 가치에 부합되는 태도와 능력을 기르며,⁵¹⁾ 민주적인 教室環境에서의 경험은 정치에 대하여 民主的인 定向을 가진 시민을 만든다.⁵²⁾ 그러나 교사의 무관심과 냉담성은 학급 분위기를 불안정하게 하고 성급하고 과격한 者를 속출케 하며, 교사의 격분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는 體制에 대한 反抗 兇을 배출한다고 한다. 그리고 지나친 복종의 강요와 과도한 경쟁심의 조장은 학급의 민주적인 분위기를 해칠 위험성을 안고 있다.

결국 여기서 기본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성취나 변화, 페어플레이와 환경극복, 협동뿐만 아니라 복종 및 경쟁에 대한 태도는 교실의 문화에 의하여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諸 要因이 중요한 波及效果를 일으켜 政治的 定向을 이루리라는 것이다.⁵³⁾



51) Dawson, Prewitt and Dawson, op. cit., pp. 146.

52) Dean Jaros, op. cit., p. 112.

53) Dawson, Prewitt and Dawson, op. cit., p. 157.

Ⅲ. 研究 方 法

1. 測定道具

本 研究에서 사용된 測定道具는 政治態度를 측정하기 위한 質問紙였다. 문항의 제작은 政治社會化 研究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기존의 문항을 그대로 引用하였으며, 그의 信賴도와 妥當度は I. S. R.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다.⁵⁴⁾ 質問紙의 問項構成 內容을 보면 <表1>과 같다.

本 研究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政治態度를 市民義務感, 政治效能, 政治信賴, 政治參與의 4개의 領域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4개 문항씩 모두 16개의 Likert 尺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즉 이들 문항에 대해 市民義務感과 政治效能에는 '절대 찬성이다'에 1점, '찬성이다'에 2점,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에 3점, '반대이다'에 4점, '절대 반대이다'에 5점으로 점수화하였고, 政治信賴와 政治參與에는 '대단히 많이'에 5점, '많이'에 4점, '조금'에 3점, '대단히 조금'에 2점, '전혀 안함'에 1점으로 점수화하였다.



2. 研究對象 및 標集方法

本 研究의 對象은 현재 在學中인 濟州道內 中學校 1, 2, 3學年 男女 學生으로 하였다. 標集方法은 群集標集方法(Cluster Sampling Techniquis)에 의하였다. 標集對象을 선정하기 위하여 우선 市·邑·面地域으로 구분하였다. 구분된 지역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기준점으로 2等分하여 西部地域의 邑·面의 1개 지역을 각각 선정하였다. 선정된 4개의 지역 중 市·邑地域에서는 男·女 각 1개 학교를, 面地域에서는

54) John P. Robinson, Jerald G. Rusk and Kendra B. Head(ed.), *Measures of Political Attitudes*, Ann Arbor. Survey Research Center, Institute for Research, the University of Michigan, 1968, pp. 483~669.

〈表1〉 質問紙의 問項構成 內容

구 분	구성요소	문 번	항 호	문 항 내 용	
정 치 태 도 의 환 경	기초조사	1		성 별	
		2		학년별	
		3		학교 소재지	
	가정환경		4		부모의 연령
			5		부모의 학력
			6		부모의 직업
			7		가정의 생활정도
정 치 태 도	시민의무감	8		투표에의 참여의무	
		9		투표에의 참여의무	
		10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	
		11		정치인이나 공무원에 대한 의사표시	
	정치효능		12		정부활동에 대한 이해가능성
			13		정부활동에 대한 국민의 영향력 행사
			14		개인의 정치효능감
	정치신뢰		15		정부활동에 대한 국민의 영향력 행사의 소유
			16		政府施政의 정당성에 대한 신뢰
			17		정부지도자의 청렴결백에 대한 신뢰
			18		정부의 국민에 대한 관심
정치참여		19		국민복지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믿음	
		20		정치문제에 대한 토론에의 참가정도	
		21		정치문제에 대한 토론에의 참가정도	
		22		매스미디어를 통한 정치문제에의 관심 표명	
		23		선호하는 정당·정치인으로 인한 의견충돌의 경험	

男女共學인 점은 고려하여 1개 학교를 표집하였으며, 각 학년에서 無選標集으로 1개 학급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7개 학교 24학급 중 남학생 615명, 여학생 633명을 대상으로 하여 1988년 4월 8일부터 4월 20일까지 각 학교의 社會科 教師의 협조아래 質問紙 調査가 행해졌다.

질문지의 조사결과는 <表2>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회수된 數는 1,240명이었다. 회수된 질문지 중에서 자료화하기가 곤란한 응답지를 제외한 결과 本 研究에서 사용된 研究對象은 총 1,055명이었다. 따라서 최종적인 分析對象으로 선정된 표집의 背景變因別數는 <表3>에 제시된 바와 같다.

<表2> 地域別 質問紙 實施 對象者 回收現況

지역	구분 성별	질문지 배부수	회수된 수	사 용		회수율 (%)
				불가능한수	유효한 수	
제 주 시	남	166	166	19	147	100
	여	171	170	33	137	99.42
서귀포시	남	151	151	30	121	100
	여	164	161	26	135	98.17
한림읍	남	160	160	11	149	100
	여	149	149	18	131	100
안덕면	남	138	135	30	105	97.83
	여	149	148	18	130	99.33
합 계		1,248	1,240	185	1,055	99.36



3. 資料處理 및 分析方法

本 研究에서 蒐集된 자료들은 모두 전산처리 되었으며, 자료분석은 연구문제와 자료의 성격에 따라 平均(M), 百分比(%), 標集偏差(SD), 分散分析에 의한 F檢證 등의 統計值가 사용되었다.

자료의 분석 및 제시방법은 전체 및 배경변인별로 각 집단간의 평균(M)을 가지고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경향을 파악하였으며, 이들 統計值에 대한 差異의 意義水準을 알아보기 위하여 F검증을 하였다.

여러 집단간의 비교를 위해서는 흔히 ANOVA라고 불리는 分散分析(analysis of variance)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分散分析은 두 집단간의 平均差를 검정하는 방

(表 3) 背景變因別 標集人員

배경변인	변인구분	평균	계	
성 별	남	522	49.5	1,055
	여	533	50.5	
학 년 별	1학년	333	31.6	1,055
	2학년	363	34.4	
	3학년	359	34.0	
학 교 소 재 지 별	시	540	51.2	1,055
	읍	280	26.5	
	면	235	22.3	
부 모 의 연 령 별	30대	60	5.7	1,055
	40대	709	67.2	
	50대	270	25.6	
	60대 이상	16	1.5	
부 모 의 학 력 별	국졸 이하	267	25.3	1,055
	중졸	349	33.1	
	고졸	356	33.7	
	대졸 이상	82	7.8	
	missing	1	.1	
부 모 의 직 업 별	농림수산업	571	54.1	1,055
	광공업	72	6.8	
	상업 및 서비스업	182	17.3	
	회사원	56	5.3	
	공무원·교사	92	8.7	
	기 타	82	7.8	
가 정 의 생 활 정 도 별	상	49	4.6	1,055
	중	890	84.4	
	하	116	11.0	

법을 더욱 확대·일반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分散分析을 할 때에는 집단간의 분산과 집단내의 분산을 비교하게 된다. 즉 分散分析은 전체평균 \bar{X} 를 중심으로 각 집단 j의 평균 \bar{X}_j 가 어느 정도 분산되어 있는가와 각 집단 j에서 개별관측값 X_{ij} 가 그것이 속한 집단의 평균 \bar{X}_j 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분산되어 있는가를 비교해 보는 분석기법이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은 몇 개의 단계를 거친다.⁵⁵⁾

첫째로, 모든 관측값 X_{ij} 와 전체평균 \bar{X} 의 차의 자승합, 즉 총자승합(SS total; sum of squares total)을 구한다.

$$SS \text{ total} = \sum_{j=1}^k \sum_{i=1}^{n_j} (X_{ij} - \bar{X})^2$$

여기서 k는 집단의 수이며, n_j 는 j번째 집단의 표본수이다.

둘째로, 집단간 차의 자승합(SS between; sum of squares between groups)을 구한다.

$$SS \text{ between} = \sum_{j=1}^k n_j (\bar{X}_j - \bar{X})^2$$

셋째로, 집단내 차의 자승합(SS within; sum of squares within groups)을 구한다.

$$SS \text{ within} = SS \text{ total} - SS \text{ between}$$

$$= \sum_{j=1}^k \sum_{i=1}^{n_j} (X_{ij} - \bar{X}_j)^2$$

네째로, 집단간 차의 자승합을 자유도 k-1로 나누어 집단간 평균자승(MS between; mean square between groups)을 구하고, 집단내 차의 자승합을 자유도 N-K로 나누어 집단내 평균자승(MS within; mean square within groups)을 구한다.

$$MS \text{ between} = SS \text{ between} / (k-1)$$

$$MS \text{ within} = SS \text{ within} / (N-k)$$

마지막으로 집단간 차에 대한 통계적 검정을 행하게 된다. k개 집단의 평균에서 검정해야 할 영가설은 $H_0 : \mu_1 = \mu_2 = \dots = \mu_k$ 인데, F검정을 사용한다.

55) 洪斗承, 「社會調查分析」(서울: 茶山出版社, 1987), pp. 199~201.

$$F = \frac{\text{MS between}}{\text{MS within}}$$

즉, 우리는 집단평균의 분산이 집단내의 개별관측값들의 분산에 비해 클수록 집단평균간의 차를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IV. 結果 및 論議

1. 領域別에 따른 政治態度 分析

1) 市民義務感

濟州道 中學生의 市民義務感에 대한 政治態度를 측정하기 위하여 投票에의 參與義務(1, 2.), 國民의 정치에 대한 관심, 政治人이나 公務員에 대한 意思表示를 묻는 4문항을 제시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결과는 <表 4-1>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投票에의 參與義務에 관해 어떠한 政治態度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이 선거에서 질 것 같이 생각될 때 투표할 필요가 없다.”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이 문항에 대한 반응결과를 보면 ‘찬성이다’가 8.8%, ‘반대이다’가 77.9%의 반응을 나타내어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이 선거에서의 탈락과 관계없이 투표를 해야한다는 높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한 분 께 투표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3.6%가 ‘찬성이다’, 93.4%가 ‘반대이다’라는 반응을 나타내어 반드시 투표를 해야한다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國民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람들은 나라의 형편을 잘 모르고 있어도 좋다.”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이 문항에 대해서는 ‘찬성이다’가 1.8%의 반응을, ‘반대이다’가 95.2%의 반응을 나타내어 국민들도 나라의 형편을 잘 알아야 한다는 높은 정치적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정치인이나 공무원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정치를 말아하는 정치인이나 나라살림을 말아하는 공무원에게 자기의 의견을 표시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이 문항에 대해서는 ‘찬성이다’가 6.9%, ‘반대이다’가 80.0%의 반응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정치를 말아하는 정치인이나 나라살림을 말아하는 공무원에게 자기의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는 높은 긍정적인 政治定向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表 4-1〉 政治態度에 대한 全體 反應結果

구분 내용	문항	N	M	SD	반응 (%)				
					절대 찬성이다	찬성이다	찬성도 아니다 아니다	반대이다	절대 반대이다
시 민 의 무 감	8	1055	4.02	.98	26 (2.5)	65 (6.2)	142 (13.5)	454 (43.0)	368 (34.9)
	9	1055	4.41	.75	8 (.8)	30 (2.8)	31 (2.9)	439 (41.6)	547 (51.8)
	10	1055	4.49	.69	9 (.9)	10 (.9)	32 (3.0)	409 (38.8)	595 (56.4)
	11	1055	4.06	.92	19 (1.8)	54 (5.1)	138 (13.1)	481 (45.6)	363 (34.4)
정 치 능 령	12	1055	3.25	1.15	62 (5.9)	267 (25.3)	219 (20.8)	360 (34.1)	147 (13.9)
	13	1055	4.42	.73	6 (.6)	25 (2.4)	40 (3.8)	429 (40.7)	555 (52.6)
	14	1055	3.90	1.02	26 (2.5)	100 (9.5)	145 (13.7)	463 (43.9)	321 (30.4)
	15	1055	3.12	1.29	130 (12.3)	273 (25.9)	146 (13.8)	351 (33.3)	155 (14.7)

2) 政治效能

정치효능에 대한 政治態度를 측정하기 위하여 政府活動에 대한 이해가능성, 政府活動에 대한 국민의 영향력 행사, 개인의 政治效能感, 政府活動에 대한 국민의 영향력 행사의 所有에 대한 效能을 묻는 4개의 문항을 제시하였다. 각 문항의 반응결과는 <표 4-1>과 같다.

정치나 정부활동에 대한 이해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때때로 정치나 정부는 대단히 복잡해서 나 같은 학생은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겠다.”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이 문항에 대한 반응결과를 보면 ‘찬성이다’가 31.2%의 반응을, ‘반대이다’가 48.0%,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가 20.8%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정부활동에 대한 이해가능성이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활동에 대한 국민의 영향력 행사를 알아보기 위하여 “국민이 무엇이든 하든 정부가 하는 일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날씨와 같아서 국민은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이 문항에 대해 ‘찬성이다’가 3.6%, ‘반대이다’가 93.3%의 반응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정부활동에 대한 국민의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 매우 높은 效能感を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政治效能感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른이 된 다음에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별로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찬성이다’가 12.0%, ‘반대이다’가 74.3%의 반응결과를 보이고 있어 개인의 政治效能感 역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활동에 대한 국민의 영향력 행사의 소유에 대한 效能感を 알아보기 위하여 제시된 “국민이 정부가 하는 일에 간섭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투표하는 일이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찬성이다’가 38.2%의 반응을, ‘반대이다’가 48.0%,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가 13.8%의 반응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정부활동에 대한 국민의 영향력 행사는 투표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3) 政治信賴

政治信賴에 대한 政治態度를 측정하기 위하여 政府施政의 正當性에 대한 信賴, 정

부지도자의 청렴결백에 대한 信賴, 정부의 국민에 대한 관심, 국민복지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믿음을 묻는 4개의 문항을 설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결과는 <表 4-2>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政府施政의 正當性에 대한 信賴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분은 정부가 얼마나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이 문항에 대한 반응결과를 보면 ‘많이’가 13.3%, ‘조금’이 46.7%, ‘대단히 조금’이 33.0%, ‘전혀 안함’이 7.0% 順으로 나타나고 있어 政府施政의 正當性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政治態度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지도자의 청렴결백에 대한 信賴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분은 정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부패하지 않고 깨끗하다고 얼마나 믿을 수 있겠습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이 문항에 대해서는 ‘많이’가 30.6%, ‘조금’이 52.9%, ‘대단히 조금’이 12.7%, ‘전혀 안함’이 3.8%의 반응결과를 보이고 있어 정부지도자들이 비교적 청렴결백하지 못하다는 태도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의 국민에 대한 관심을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분은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고, 국민들의 생각을 충분히 받아들인다고 믿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많이’가 24.8%의 반응을, ‘조금’이 47.1%, ‘대단히 조금’이 23.2%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 문항에서 긍정적인 반응은 24.8%에 불과하고 있어 정부의 政策決定 過程이 국민의 이익과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는 不信의 政治態度를 보이고 있다.

국민복지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믿음을 알아보기 위하여 제시된 “여러분은 정부가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얼마나 일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15.8%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조금’이 45.1%, ‘대단히 조금’이 33.6%의 반응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국민복지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믿음이 부정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4) 政治參與

政治參與에 대한 政治態度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치문제에 대한 討論에의 참가정도(1, 2), 매스미디어를 통한 정치문제에의 關心表明, 選好하는 정당·정치인으로

〈表 4-2〉 政治態度에 대한 全體 反應結果

구분 내용	문항	N	M	SD	반응 (%)				
					대단히 많이	많이	조금	대단히 적음	
정신	16	1055	3.30	.87	38 (3.6)	102 (9.7)	493 (46.7)	348 (33.0)	74 (7.0)
	17	1055	2.81	.90	92 (8.7)	231 (21.9)	558 (52.9)	134 (12.7)	40 (3.8)
	18	1055	3.01	.95	82 (7.8)	179 (17.0)	497 (47.1)	245 (23.2)	52 (4.9)
	19	1055	3.25	.87	36 (3.4)	131 (12.4)	476 (45.1)	354 (33.6)	58 (5.5)
참여	20	1055	3.02	.98	79 (7.5)	195 (18.5)	476 (45.1)	239 (22.7)	66 (6.3)
	21	1055	2.63	1.05	167 (15.8)	302 (28.6)	386 (36.6)	152 (14.4)	48 (4.5)
	22	1055	3.31	.92	25 (2.4)	161 (15.3)	424 (40.2)	350 (33.2)	951 (9.0)
	23	1055	2.16	1.20	446 (42.3)	196 (18.6)	259 (24.5)	108 (10.2)	46 (4.4)

인한 의견충돌의 경험을 묻는 4개의 문항을 설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결과는 <表 4-2>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정치문제에 대한 토론에의 참가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분은 친구들과 정치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어느 정도 참가합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이 문항에 대한 반응결과를 보면 ‘많이’가 26.0%, ‘조금’이 45.1%, ‘대단히 조금’이 22.7%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소극적인 정치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러분은 어른들과 얼마나 자주 정치문제를 이야기하고 여쭙어보니까?”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많이’가 44.4%, ‘조금’이 36.6%, ‘대단히 조금’이 14.4%의 반응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역시 소극적인 政治態度의 定向을 보이고 있다.

매스미디어를 통한 정치문제에의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분은 라디오, 신문, 텔레비전 등에서 세계의 정치형편이나 나라안의 정치형편에 대해 어느 정도 열심히 듣고 봅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많이’가 19.7%, ‘조금’이 40.2%, ‘대단히 조금’이 33.2%의 반응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매스미디어를 통한 정치문제에의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호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으로 인한 의견충돌의 경험을 알아보기 위하여 제시된 “여러분은 어느 정당이나 정치인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일로 인하여 친구들과 의견 대립으로 다툰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반응결과를 보면 ‘많이’가 60.9%, ‘조금’이 24.5%, ‘대단히 조금’이 14.6%, ‘전혀 안함’이 4.4%의 반응결과를 보이고 있어 정당선호도 또는 정치인 선호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背景變因別에 따른 政治態度 分析

1) 性別에 따른 政治態度의 差異

濟州道 中學生들이 性別에 따라 政治態度가 어떻게 차이나고 있는가는 <表 5>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表 5>에 의하면, 市民義務感과 政治參與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政治效能과 政治信賴에 있어서 여학생이 평균점수에 있어서는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市民義務感에서만 $p < .05$ 의 有意水準에서 통계적으로 意義있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을

〈表 5〉 性別에 따른 政治態度의 差異

정치 태도	집단(N)	M	SD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변량추정치	F	P
시민의무감	남(522) 여(533)	17.15 16.80	2.34 2.33	집단간 집단내 전체	32.34 5739.87 5772.21	1 1053 1054	32.34 5.45	5.93	.015*
정치효능	남(522) 여(533)	14.82 14.98	2.55 2.43	집단간 집단내 전체	14.97 6539.57 6554.54	1 1053 1054	14.97 6.21	2.41	.121
정치신뢰	남(522) 여(533)	12.31 12.43	2.92 2.38	집단간 집단내 전체	4.12 7469.71 7473.83	1 1053 1054	4.12 7.09	.58	.446
정치참여	남(522) 여(533)	11.23 11.01	3.10 2.77	집단간 집단내 전체	13.50 9103.46 9116.96	1 1053 1054	13.50 8.65	1.56	.212

*p<.05

뿐, 政治效能, 政治信賴, 政治參與에 있어서는 男女의 性別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政治的 定向에 있어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정치에 관심이 더 많고 적극적이며,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反政府的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⁵⁶⁾이나 本 研究에서는 그러한 差異가 나타나지 않았다.

2) 學年別에 따른 政治態도의 差異

學年에 따라 政治態도가 어떻게 발달하고 있는가는 <表6>을 통해서 알 수 있다.

<表6> 學年別 政治態度 點數

구분 학년	N	변인 구성비 (%)	시민의무감		정치효능		정치신뢰		정치참여	
			M	SD	M	SD	M	SD	M	SD
1	333	31.6	16.62	2.46	14.41	2.54	13.16	2.56	11.23	2.72
2	369	34.4	17.01	2.19	14.80	2.46	12.28	2.76	10.95	3.01
3	359	34.0	17.26	2.34	14.87	2.47	11.73	2.47	11.19	3.07
전체	1,055	100.0	16.97	2.34	14.70	2.49	12.37	2.66	11.12	2.94

<表6>에 따르면, 市民義務感은 전체 평균이 17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즉 선거시의 투표, 법과 규칙의 준수 등에 대한 義務感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政治效能에 있어서도 비교적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개인의 政治行動이 政治過程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느낌은 학년간에 별차이 없이 높지만, 政治信賴는 중간 정도의 점수(각 態度를 4문항으로 측정하였으므로 중간점수는 12점이다)를 보이고 있어서 정부나 정부지도자에 대한 믿음은 中立的이라고 할 수 있다. 政治參與에 있어서는 중간점수 이하(M=11.12)로서, 정치문제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하거나 어른들과 대화를 하거나 하는 일은 별로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P < .01$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意義

56) 李鍾烈, “高等學校 學生의 政治態度發達에 관한 研究”(碩士學位論文, 서울大學校 大學院, 1977), p. 78.

있는 差異를 보이면서 市民義務感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政治效能은 $P < .05$ 의 수준에서 意義있는 差異를 보이면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政治信賴는 $P < .001$ 의 수준에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表7> 그러나 政治參與에 있어서는 統計적으로 意義있는 差異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전체 학생의 政治效能點數(14.70)와 政治信賴點數(12.37)로 보아서는 忠誠의 政治的 定向을 나타내고 있으나, 政治效能의 點數는 학년에 따라 $P < .05$ 의 수준에서 올라가고 있고, 政治信賴點數는 $p < .001$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意義있는 差異를 보이면서 낮아지고 있으므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異意의 政治的 定向을 아주 강하게 示唆하고 있다.

3) 學校 所在地別에 따른 政治態도의 差異

濟州道 中學生들이 현재 在學하고 있는 학교의 所在地를 市·邑·面으로 구분하여, 이들간에 政治態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表8>에 따르면 학교의 所在地가 邑($M=16.82$), 市($M=17.23$) 地域으로 갈수록 학생들은 선거시의 투표, 법과 규칙의 준수 등에 대한 義務感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정부나 정부지도자에 대한 信賴度는 학교의 所在地가 邑($M=12.66$), 面($M=12.49$) 地域보다 市地域($M=12.16$)이 낮아지고 있어 市地域 학생들은 市民義務感은 높은 반면 政治信賴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8>에서 볼 때 市民義務感에 있어서는 $P < .01$ 의 수준에서, 政治信賴에 있어서는 $P < .05$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意義있는 差異를 나타내고 있으나, 다른 政治態度 즉 政治效能과 政治參與에 있어서는 差異가 나타나지 않았다.

學校 所在地別에 따른 政治的 定向의 類型은 政治效能의 점수가 面($M=14.92$)市($M=16.64$), 邑($M=14.62$) 地域 順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으로 忠誠의 政治的 定向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역간에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4) 父母의 年齡別에 따른 政治態도의 差異

부모의 연령別에 따른 학생들의 政治態도의 差異는 <表9>와 같다.

<表9>에 따르면 부모의 연령이 50代인 학생($M=17.16$)이 市民義務感에 있어서는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으로 부모의 연령이 40代인 학생($M=17.00$), 30代인 학생($M=16.48$), 60代인 학생($M=15.94$) 순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집단1 : 1학년
 집단2 : 2학년
 집단3 : 3학년

〈表 7〉 學年別에 따른 政治態度의 差異

정치 태도	평균	SD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변량추정치	F	P
·	1=16.62	2.46	집단간	69.75	2	34.87		
시민의무감	2=17.01	2.19	집단내	5702.46	1052	5.42	6.43	.002**
	3=17.26	2.34	전체	5772.21	1054			
	1=14.41	2.54	집단간	42.37	2	21.19		
정치효능	2=14.80	2.46	집단내	6512.17	1052	6.19	3.42	.033*
	3=14.87	2.47	전체	6554.54	1054			
	1=13.16	2.56	집단간	358.68	2	179.34		
정치신뢰	2=12.28	2.76	집단내	7115.15	1052	6.76	26.52	.0***
	3=11.73	2.47	전체	7473.83	1054			
	1=11.23	2.72	집단간	16.55	2	8.28		
정치참여	2=10.95	3.01	집단내	9100.40	1052	8.65	.96	.384
	3=11.19	3.07	전체	9116.95	1054			

* p<.05
 **p<.01
 ***p<.001

〈表 8〉 學校 所在地別에 따른 政治態度의 差異

정치 태도	집단(N)	M	SD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변량추정치	F	P
	시 (540)	17.23	2.31	집단간	73.96	2	36.98		
시민의무감	읍 (280)	16.82	2.33	집단내	5698.25	1052	5.42	6.83	.001***
	면 (235)	16.59	2.36	전체	5772.21	1054			
	시 (540)	14.64	2.46	집단간	15.51	2	7.75		
정치효능	읍 (280)	14.62	2.46	집단내	6539.04	1052	6.22	1.25	.288
	면 (235)	14.92	2.59	전체	6554.55	1054			
	시 (540)	12.16	2.56	집단간	49.99	2	25.00		
정치신퇴	읍 (280)	12.66	2.85	집단내	7423.84	1052	7.06	3.54	.029*
	면 (235)	12.49	2.63	전체	7473.83	1054			
	시 (540)	11.09	2.96	집단간	.70	2	.35		
정치참여	읍 (280)	11.15	2.95	집단내	9116.25	1052	8.67	.04	.960
	면 (235)	11.14	2.89	전체	9116.95	1054			

*p<.05
***p<.001

〈表 9〉 父母의 年齡別에 따른 政治態度의 差異

정치 태도	집단(N)	M	SD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변량추정치	F	P
시민의무감	30대(60)	16.48	3.31	집단간	34.24	3	11.41		
	40대(709)	17.00	2.29	집단내	5737.96	1051	5.46	2.09	.100
	50대(270)	17.06	2.20	전체	5772.20	1054			
	60대(16)	15.94	2.35	집단간	22.39	3	7.46		
정치효능	30대(60)	14.23	2.71	집단간	6532.16	1051	6.22	1.20	.308
	40대(709)	14.70	2.41	집단내	6554.55	1054			
	50대(270)	14.82	2.66	전체	135.53	3	45.18		
	60대(16)	14.15	2.53	집단내	7338.30	1051	6.98	6.47	.000***
정치신뢰	30대(60)	13.43	2.82	집단간	7473.83	1054	15.84		
	40대(709)	12.18	2.74	집단내	47.51	3	8.63	1.84	.139
	50대(270)	12.55	2.42	전체	9069.45	1051			
	60대(16)	13.81	1.60	집단내	9116.96	1054			
정치참여	30대(60)	10.75	2.69	집단간					
	40대(709)	11.06	2.96	집단내					
	50대(270)	11.41	2.92	전체					
	60대(16)	10.19	3.10	집단내					

***P<.001

부모의 연령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意義있는 差異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政治效能에 있어서도 역시 부모의 연령이 50代인 학생(M=14.82)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40代인 학생(M=14.70)이 그 다음으로 높다. 政治信賴에 있어서는 부모의 연령이 60代인 학생(M=13.81)이 가장 높은 반면, 50代(M=12.55), 40代(M=12.18)인 학생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P<.001의 수준에서 意義있는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政治參與에 있어서는 부모의 연령이 50代인 학생(M=11.41)이 가장 점수가 높고 60代인 학생(M=10.19)이 가장 낮으나 有意한 差異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부모의 연령별에 따른 政治態度的 差異를 살펴 볼 때 대체로 부모의 연령이 40·50代인 학생의 경우 政治效能은 높으나, 政治信賴는 P<.001의 수준에서 점수가 낮아지고 있어 부모의 연령이 30·60代인 학생에 비해 異意的 政治的 定向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5) 父母의 學歷別에 따른 政治態度的 差異

父母의 學歷別에 따른 政治態度的 差異는 <表10>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表10>에 따르면, 市民義務感, 政治效能, 政治參與에 있어서는 父母의 학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긍정적인 반응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政治信賴에 있어서는 父母의 학력이 中卒인 학생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信賴度가 낮아지고 있다.

市民義務感에 있어서는 P<.001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意義있는 差異를 보이면서 父母의 학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선거시의 투표, 법과 규칙의 준수 등에 대한 의무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政治參與에 있어서는 5%의 有意水準에서 意義있는 差異를 보이면서 부모의 학력이 높은 학생일수록(中卒은 제외) 政治參與의 점수가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부모의 학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정부나 정부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이들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고 믿으며 실제로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부모의 학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異意的 政治的 定向을 보다 강하게 示唆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父母의 職業別에 따른 政治態度的 差異

父母의 職業別에 따른 政治態度的 差異는 <表 11>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表 10〉 父母의 學歷別에 따른 政治態度의 差異

정태도	집단(N)	M	SD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변량추정치	F	P
시민의무감	국졸이하(267)	16.48	2.41	집단간	160.98	3	53.66		
	중졸(349)	16.80	2.37	집단내	5602.05	1050	5.34	10.06	.000***
	고졸(356)	17.37	2.17	전체	5763.03	1053			
	대졸이상(82)	17.57	2.29						
정치효능	국졸이하(267)	14.44	2.52	집단간	38.57	3	12.86		
	중졸(349)	14.74	2.51	집단내	6515.48	1050	6.21	2.07	.102
	고졸(356)	14.74	2.44	전체	6554.05	1053			
	대졸이상(82)	15.18	2.55						
정치신뢰	국졸이하(267)	12.35	2.73	집단간	6.05	3	2.02		
	중졸(349)	12.46	2.74	집단내	7467.39	1050	7.11	0.28	.837
	고졸(356)	12.34	2.57	전체	7473.44	1053			
	대졸이상(82)	12.18	2.59						
정치참여	국졸이하(267)	10.79	2.77	집단간	89.20	3	29.73		
	중졸(349)	11.01	3.06	집단내	9027.74	1050	8.60	3.46	.016*
	고졸(356)	11.31	2.95	전체	9116.94	1053			
	대졸이상(82)	11.84	2.79						

Missing Cases 1.

*P<.05
***P<.001

〈表 11〉 父母의 職業別에 따른 政治態度의 差異

정태	집 단 (N)	M	SD	번 량 원	자 승 합	자 유 도	번 량 추 경 치	F	P
시 민 의 무 감	농 립 수 산 업(571)	16.78	2.33	집 단 간	103.81	5	20.76	3.84	.002**
	광 공 업(72)	16.79	2.39	집 단 내	5668.40	1049	5.40		
	상 업 · 서 비 스 업(182)	17.31	2.29						
	회 사 원(56)	17.20	2.38						
	교 사 · 공 무 원(92)	17.72	2.16						
기 타(82)	16.70	2.45							
정 치 능	농 립 수 산 업(571)	14.54	2.49	집 단 간	41.99	5	8.40	1.35	.240
	광 공 업(72)	15.15	2.49	집 단 내	6512.56	1049	6.21		
	상 업 · 서 비 스 업(182)	14.90	2.54						
	회 사 원(56)	14.82	2.40						
	교 사 · 공 무 원(92)	14.90	2.38						
기 타(82)	14.65	2.56							
정 치 회	농 립 수 산 업(571)	12.46	2.60	집 단 간	102.29	5	20.46	2.91	.013*
	광 공 업(72)	11.50	2.84	집 단 내	7371.54	1049	7.03		
	상 업 · 서 비 스 업(182)	12.13	2.63						
	회 사 원(56)	12.30	2.88						
	교 사 · 공 무 원(92)	12.43	2.46						
기 타(82)	12.99	2.93							
정 치 여	농 립 수 산 업(571)	11.00	2.97	집 단 간	49.88	5	9.98	1.15	.330
	광 공 업(72)	10.78	3.31	집 단 내	9067.08	1049	8.64		
	상 업 · 서 비 스 업(182)	11.45	2.91						
	회 사 원(56)	11.11	3.02						
	교 사 · 공 무 원(92)	11.50	2.73						
기 타(82)	11.10	2.63							

*P<.05
**P<.01

〈表 11〉에 따르면 市民義務感에 있어서는 부모의 職業이 교사·공무원인 학생(M=17.72)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어 국민으로서 한 개인이 국가나 정부에 대하여 해야 할 본분에 관한 느낌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상업·서비스업(M=17.31)이 그 다음으로, 회사원(M=17.20), 광공업(M=16.79), 농림수산업(M=16.78), 기타(M=16.70) 順으로 낮아지면서 P<.01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意義있는 差異를 보이고 있다. 政治效能에 있어서는 부모의 職業이 광공업인 학생(M=15.15)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상업·서비스업(M=14.90)과 교사·공무원(M=14.90)이 그 다음으로, 회사원(M=14.82), 기타(M=14.65), 농림수산업(M=14.54)의 順으로 점수가 낮아지고 있으나 有意한 差異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政治信賴에 있어서는 기타(M=12.99)가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농림수산업(M=12.46), 교사·공무원(M=12.43), 회사원(M=12.30), 상업·서비스업(M=12.13), 광공업(M=11.50) 등의 順으로 정부와 정부지도자에 대한 믿음이 낮아지고 있으며 P<.05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意義있는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政治參與에 있어서는 부모의 직업이 교사·공무원인 학생(M=11.50)이 가장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고, 광공업이 가장 낮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有意한 差異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부모의 職業別에 따른 政治態도의 差異에 관한 반응결과를 볼 때 대체적으로 忠誠의 政治的 定向을 보이고 있으나, 특히 부모의 職業이 광공업인 학생의 경우에 政治效能은 높으나 政治信賴는 낮아 異意의 政治的 定向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7) 家庭의 生活程度에 따른 政治態도의 差異

家庭의 生活程度에 따른 학생들의 政治態도의 差異를 알아보기 위하여 家庭의 生活程度를 上, 中, 下로 구분하여 이들간의 政治態도의 차이를 〈表 12〉에서 제시하였다.

〈表 12〉에 따르면, 市民義務感에 있어서는 P<.05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意義있는 差異를 나타내고 있을 뿐, 政治效能, 政治信賴, 政治參與에 있어서는 有意한 差異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表 12〉로 보아 家庭의 生活程度가 中·上으로 갈수록 市民義務感, 政治效能, 政治信賴, 政治參與에 대한 점수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政

〈表 12〉 家庭의 生活程度에 따른 政治態度의 差異

정치 태도	집단(N)	M	SD	변량원	자 승 합	자 유 도	변량추정치	F	P
시민의무감	상 (49)	17.35	2.32	집 단 간	36.36	2	18.18	3.33	.036*
	중 (890)	17.02	2.32	집 단 내	5735.85	1052	5.45		
	하 (116)	16.48	2.46	집 단 내	5772.21	1054	4.36		
정치효능	상 (49)	14.88	2.00	집 단 간	8.72	2	4.36	.70	.497
	중 (890)	14.72	2.51	집 단 내	6545.83	1052	6.22		
	하 (116)	14.46	2.58	집 단 내	6554.55	1054	11.77		
정치신퇴	상 (49)	12.51	3.20	집 단 간	23.55	2	11.77	1.66	.190
	중 (890)	12.42	2.60	집 단 내	7450.28	1052	7.08		
	하 (116)	11.95	2.88	집 단 내	7473.83	1054	14.44		
정치참여	상 (49)	11.84	2.76	집 단 간	28.87	2	14.44	1.67	.189
	중 (890)	11.10	2.92	집 단 내	9088.08	1052	8.64		
	하 (116)	10.95	3.18	집 단 내	9116.95	1054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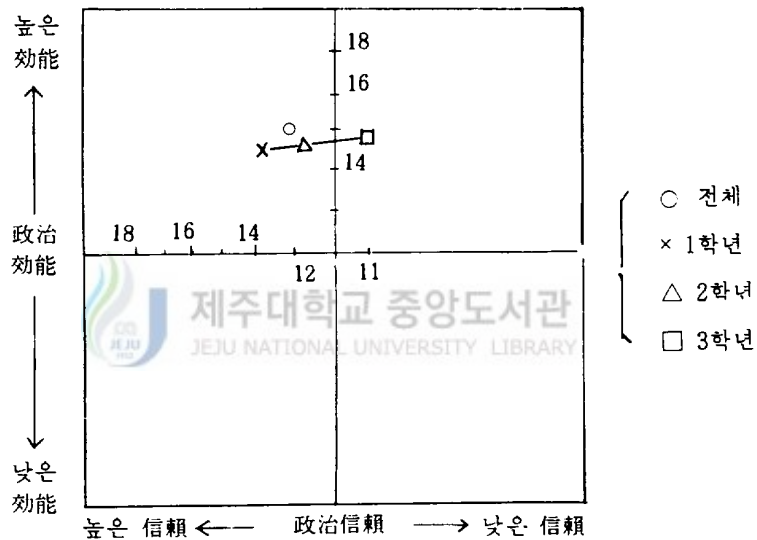
政治態度는 家庭의 經濟的 水準이 높아질수록 肯定的인 政治的 定向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3. 政治的 定向의 類型

濟州道 中學生 전체를 통해서 볼 때, 政治效能은 중간점수보다 높은 수준(M=14.70)이고, 政治信賴는 중간정도의 점수(M=12.37)로서 낮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政治態度에서 政治的 定向의 類型을 생각해 보면 <圖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면에서는 忠誠의 政治的 定向을 보이고 있으나,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政治信賴의 낮은 점수로 인해 異意의 政治的 定向을 강하게 示唆하고 있다.

<圖 1> 中學校 學生의 政治的 定向



<表 13> 政治效能, 政治信賴의 發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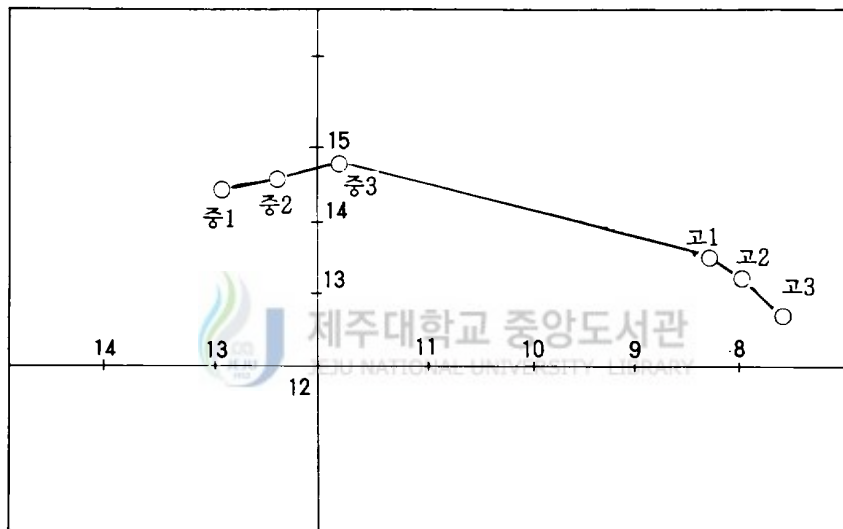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政治效能	14.41	14.80	14.87	13.60	13.45	12.97
政治信賴	13.16	12.28	11.73	8.38	7.95	7.59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정치태도 발달에 관해서는 金星美, 前掲論文, p.130.

〈表13〉에 보면 政治效能에 있어서 中學生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점수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高等學生의 경우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政治信賴에 있어서는 中·高等學生 모두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信賴點數가 낮아지므로 점차 異意의 政治的 定向으로 접근해 가면서 중학교 3학년에서부터는 이미 異意의 政治的 定向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이 차츰 정부나 정부지도자를 불신하게 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야 하며, 또 그러한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政治的 定向은 급진적인 政治行動을 나타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정치체제는 不安定의이기 쉽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⁵⁷⁾

이러한 政治的 定向의 發達過程을 알아보기 위하여 〈圖1〉를 확대하면 〈圖2〉와 같다.

〈圖 2〉 政治的 定向의 發達



〈圖2〉에 따르면, 중학교 1, 2학년 때에는 忠誠의 政治的 定向을 보이다가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 2, 3학년 때에는 異意의 政治的 定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政治的 定向의 발달을 종합해 보면 濟州道 中學生들은 政治的 能力感과 정부와 정부지도자에 대한 信賴感은 낮아지면서 異意의 政治的 定向을 향해 가고 있다.

57) Jeffery Paige, op. cit., p. 812.

異意의 政治的 定向은 급진적인 政治行動의 가능성을 지닌 政治的 定向으로서, 이러한 下位 政治文化를 지닌 정치체제는 不安定的이기 쉽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濟州道 中學生들의 政治態度는 일반적 기대와는 달리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要約 및 提言

1. 要 約

本 研究는 濟州道 中學生의 政治態度는 社會·經濟的 背景과 性別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조사 분석하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中學生의 政治態度는 어떠한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는지를 밝혀보려는 目的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地域별로 男女 1개교씩 濟州市 2개교, 서귀포시 2개교 그리고 기타 地域에서 3개교를 선정하여 각 학교별로 한 학년에 1학년씩 3개 학급에서 男女學生 1,055명을 표집하여 이를 대상으로 性別, 學年別, 學校 所在地別, 父母의 年齡別, 父母의 學歷別, 父母의 職業別, 家庭의 生活程度별로 市民義務感, 政治效能, 政治信賴, 政治參與 등의 政治態度를 測定하였다.

이에 따라 나타난 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性別에 따른 조사결과는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市民義務感과 政治參與가 높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政治效能과 政治信賴가 높게 나타났으나, 市民義務感에 있어서만 男女간에 통계적으로 意義있는 차이가 있다.

(2) 學年別에 따른 조사결과는 市民義務感과 政治效能이 각각 1%와 5%의 수준에서 意義있는 차이를 나타내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선거시의 투표와 법과 규칙의 준수 등에 대한 의무감과 개인이 政治的 決定에 영향을 미치는 느낌이 크다고 믿고 있다. 政治信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P < .001$ 의 수준에서 意義있는 차이를 보이면서 정부와 정부지도자에 대한 불신감을 강하게 표시하고 있다.

(3) 學校 所在地別에 따른 조사결과는 市民義務感과 政治信賴에 있어서는 0.1%와 5%의 수준에서 有意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市地域으로 갈수록 市民義務感은 높아지는 반면에 政治信賴는 낮아지고 있다.

(4) 父母의 연령별에 따른 조사결과는 政治信賴에서만 有意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P < .001$), 부모의 연령이 50代인 학생의 信賴感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40代,

60代, 30代의 順으로 낮아지고 있어 부모의 연령이 중년층에 가까운 학생일수록 信賴感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父母의 學歷別에 따른 조사결과는 市民義務感과 政治參與만이 각각 0.1%와 5% 수준에서 有意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父母의 學歷이 높을수록 市民義務感과 政治參與가 높아지고 있다.

(6) 父母의 職業別에 따른 조사결과는 市民義務感과 政治信賴에서 각각 1%와 5% 수준에서 有意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市民義務感에 있어서는 부모의 직업이 교사·공무원인 학생이 가장 낮은 義務感을 갖고 있고, 政治信賴에 있어서는 부모의 직업이 公務員인 학생이 가장 낮은 信賴感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家庭의 生活程度에 따른 조사결과는 市民義務感만이 5% 수준에서 有意한 차이를 보이면서 家庭의 生活程度가 上으로 갈수록 선거시의 투표와 법과 규칙에 대한 준수 등의 의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提 言

이상의 研究結果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몇가지 提言을 하려한다.

(1) 濟州道 中學生들의 政治態度에 관한 연구가 보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결과를 교사나 교육전문가가 최대한 활용하여 효과적인 정치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政治態度는 社會·經濟的 수준, 性別, 學年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음으로 학생들이 올바른 政治的 定向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와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학년이 올라갈수록 政治效能은 높고 政治信賴가 低下되고 있는데 이는 政治的 不信을 가져오게 하는 한편 國民적 일체감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으로, 政治적 不信감을 해소하고 민주적인 정치문화로의 발전과 함께 민주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4) 학생들의 政治參與意識을 높이기 위하여 학급회의 활동, 클럽활동, 교실내에서의 意思決定에의 참여 등에 대한 교육적인 노력 및 지도와 아울러 社會科 教育課程, 授業體制 등에서의 改善方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參 考 文 獻

- 金桂洙 외. 「現代政治過程論」. 서울 : 法文社, 1981.
- 金星美. “濟州道 高等學生들의 市民意識에 관한 調查研究”. 碩士學位論文, 濟州大
學校 教育大學院, 1988.
- 金在永. 「政治社會化論」. 서울 : 大旺社, 1982.
- 朴容憲. 「社會的 行動과 學習」. 서울 : 教育出版社, 1973.
- 「教育心理學辭典」. 서울 : 培英社, 1965.
- 庚在浩. “高等學校 學生의 政治社會化에 관한 調查研究”. 碩士學位論文, 全南大學
校 行政大學院, 1982.
- 李克燦. “政治社會化의 課題와 人間形成의 方向”. 「延世教育科學」第8輯, 1975.
- 李永鎬. “政治社會化의 過程”. 金雲泰 外 「韓國政治論」. 서울 : 博英社, 1981.
- 李鍾烈. “高等學校 學生의 政治態度 發達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서울大學校
大學院, 1977.
- 印正鈺. “人性持性和 政治態度와의 關係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서울大學校
大學院, 1977.
- 任乙化. “濟州市 高等學生의 政治社會化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1985.
- 鄭世九. “初·中學校 學生들의 政治態度의 發達 : 政治信賴와 政治效能”. 「韓國教育」.
서울 : 韓國教育開發院, 1974. 12.
- 韓興壽. “市民政治體制의 土着化와 教育”. 「社會科學論文集」第5輯, 延世大學校 社
會科學研究所, 1972.
- 洪斗承. 「社會調查分析」. 서울 : 茶山出版社, 1987.
- Almond, Gabriel A. and Bingham Powell G. *Comparative Politics : A Developmental
Approach*. Boston : Little, Brown and Co., 1966.
- _____ and Coleman, James S. (eds.). *The Politics of Developing Areas*. Princeton,

-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1.
- _____ and Sidney Verba. *The Civic Culture :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Boston : Little Brown and Company, 1965.
- Beer, Samuel, H. "The Analysis of Political System" *Patterns of Government*, ed. . by Beer, Samuel H. and Ulam, B. New York : London, 1958.
- Campell, D. T. "The Indirect Assessment of Social Attitude". *Psychological Bulletin*. No. 47, 1950.
- Dawson, Richard E. and Kenneth, Prewitt *Political Socialization* : Boston: Little Brown and Co. , 1969.
- Dawson, Richard E. ;Kenneth, Prewitt. , and Dawson, Karen, S, *Political Socialization* New York;Boston, Little Brown and Co. , 1977.
- Easton, D. and Hess, R. D. "The Child's Political", *Midwest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 Aug. , 1962.
- _____ "The Child's Changing Image of the President", *Public Opinion Quarterly*. Vo. 24, 1960.
- _____ and Dennis, J. "The Child's Acquisition of Regime Norms : Political Effica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 61, 1967.
- Eysenck H. J. *The psychology of politics*. London Routledge and Kegan Poul, 1954.
- Greenstein, Fred I. "Political Socializatio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ization*, Vol. 14. New York : Macmillian and Free Press, 1968.
- Hyman, H. H. *Political Socialization*. New York : The Free Press, 1965.
- Jaros, Dean. *Socialization to Politics*. New York : Praeger Publishers, 1973.
- Langton, Kenneth H. *Political Socialization*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 Massialass, Byron G. "Citizenship and Political Socialization", *Encyclopedia of Educational Research*, 1969.
- _____ *Education and The Political System*. California :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69.

Paige, Jeffery M. "Political Orientation and Riot Particip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36. Oct., 1971.

Robinson, John P.; Rusk, Jerald G. and Head, Kendra B., ed. *Measures of Political Attitudes*. Ann Arbor, Survey Research Center,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the University of Michigan, 1968.

Rokeach, Milton. "The Role of Values in Public Opinion Research",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32, 1968-1969.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olitical Attitudes in
Middle School Students in Cheju-Do

Lee Mun-Ha

Major in Social Studie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Hang-won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differences of political attitudes in middle school students in Cheju-do according to their sexes and socio-economic status, and describe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political attitudes as they are stepping to higher grade.

For these purposes, seven schools are chosen-two schools (girls and boys) in Cheju-city and Sogwip'o respectively, and three in other area. Three classes in every school-one per grade were selected, and then 1,055 students were questioned on citizenship duty,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trust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 questionnaire was designed and its items were selected from those that has been used in most political socialization researches lately.

The data collected were processed by computer and analyzed by

using such methods as mean scores, percentage, standard deviation and F-test to the analysis of variance.

The result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1) Little difference of political attitudes between sexes.

2) In the point of social status, students in urban schools have stronger distrust in politics than those in local schools students who have their parents at the middle age are more inclined to trust politics and those whose parents had higher education have greater interest in politics.

3)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discovered according to socio-economic status.

As a whole, middle school students' political attitudes has the respects of faithfulness but they are approaching to 'dissent' political orientation according to their grade which has the potential possibility of radical political activities.

In view of the findings above, more political socialization researches about middle school students in Cheju-do are needed and by using the results the most teachers of social studies should make efforts.

So that the effective political education may be accomplished, also schools and societies should assist students in having the correct political attitudes.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중학교 학생들의 정치태도 측정을 위한 질문지

연구자에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질문지는 정치 태도에 대한 학생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본 연구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결코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한 내용은 모두 숫자로 통계 처리되므로 여러분의 학교생활이나 성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니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고 성실하게 대답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 전공 이 문 하

◎ 다음 사항 중에서 해당된 번호에 ○표를 하십시오.

1. 응답자의 성별 : ① 남 ② 여
2. 응답자의 학년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3. 응답자의 학교 소재지 : ① 시 ② 읍 ③ 면
4. 부모님의 연령은?
① 30대 ② 40대 ③ 50대 ④ 60대
5. 부모님의 학력은? (중퇴는 졸업에 넣어 주십시오)
① 국졸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 이상
6. 부모님의 직업은?
① 농업, 수산업, 임업, 목축업 등 1차 산업
② 공업, 건축업, 토목등 2차 산업
③ 상업 및 서비스업
④ 회사원
⑤ 공무원(교육 공무원 포함)
⑥ 기타





7. 응답자의 가정 생활 정도는?

- ① 상 ② 중 ③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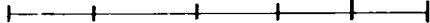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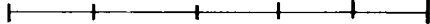
◎ 다음 문항을 읽고 5개의 보기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에 V표를 해 주십시오.

<시민의무감>

절대찬 찬성도 절 대
성이다. 반대도 반 대
찬성이다. 아니다. 이 다. 이 다.

8.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이 선거에서 질 것같이 생각될 때 투표할 필요가 없다.'는 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9.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한 분 짝은 투표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0. '사람들은 나라의 형편을 잘 모르고 있어도 좋다.'는 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1. '사람들은 정치를 말아 하는 정치인이나 나라 살림을 말아 하는 공무원에게 자기의 의견을 표시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치효능>

12. '때때로 정치나 정부는 대단히 복잡해서 나 같은 학생은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3. '국민이 무엇이든 정부가 하는 일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날씨와 같아서 국민은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4. '우리가 어른이 된 다음에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별로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 라는 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5. '국민이 정부가 하는 일에 간섭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투표하는 일이다.' 라는 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치신뢰>

대단히
많이
대단히
조금
조금
전혀
안함

16. 여러분은 정부가 얼마나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7. 여러분은 정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부패하지 않고 깨끗하다고 얼마나 믿을 수 있겠습니까?

18. 여러분은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고, 국민들의 생각을 충분히 받아들인다고 믿고 있습니까?

19. 여러분은 정부가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얼마나 일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정치참여>



20. 여러분은 친구들과 정치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어느 정도 참가 합니까?

21. 여러분은 어른들과 얼마나 자주 정치 문제를 이야기하고 여쭙어 보니까?

22. 여러분은 라디오, 신문, 텔레비전 등에서 세계의 정치 형편이나 나라안의 정치 형편에 대해 어느 정도 열심히 듣고 보니까?

23. 여러분은 어느 정당이나 정치인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일로 인하여 친구들과 의견 대립으로 다툼적이 있습니까?